

RP 매입에 한숨 돌린 증권사... 마진콜 등 우려 날렸다

정부 경기 부양책에 유동성 확보 대형사 중심 증권주 다시 반등세

코로나19 2차 시장상황 예단 못해 실적 악화, 높은 CP금리도 우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수 급락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증권사의 숨통이 트였다. 수 십 조원에 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거래 비용 부담이 우려보다 축소되면서다. 채권안정화기금을 통해 단기시장에 돈이 풀리기 때문이다. 단기 조달시장이 위축되며 ELS 운용에 필요한 증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 단기 수혜주? ... 증권주 반등세

대형사를 중심으로 증권주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계약 체결과 글로벌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증시 반등을 시작한 24일부터 26일까지 3거래일 동안 KRX 증권지수 등락률은 각각 13.30%, 17.24%, -0.61%를 보였다. 이틀연속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지수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다 부담으로 작용한 듯 소폭 꺾였다. 이 기간 KRX 증권지수 상승률은 16.52%로 코스피 지수 상승률

(4.74%)의 네 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 같은 증권주의 강세는 당장 필요한 자금줄이 생기며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손실을 막기 위해 헤지(위험회피)를 걸어놓은 ELS에 대규모 마진콜(증거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도산' 가능성까지 나왔으나 당장 숨을 돌렸다.

ELS의 기초자산인 글로벌 주요 지수들이 급락하며 자금난에 직면했으나 정부가 24일 100조원 규모의 금융정책을 발표하면서다. 기업어음(CP)과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급하게 현금 확보에 나서던 증권사가 단기자금시장에 7조원을 투입했다.

정책적 호재도 이어졌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RP 무제한 매입을 발표함과 동시에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들여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그 채권을 해당 금융회사에 환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액공급방식은 과거 외환위

기나 금융위기 때도 실시하지 않은 '과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1회씩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환율 안정세도 긍정적 요소다. 단기 자금을 달러로 조달해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진콜 규모가 예상 손실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채권 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와 한·미 통화스와프를 고려할 때 유동성 부담은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 유동성 위기 한숨 돌렸지만...

그렇다 증권사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역사적인 글로벌 증시 폭락이 반복되며 자체적인 모멘텀보다 시장 변수에 영향을 받는 일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26일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1800원(3.73%) 하락한 4만6400원에 마감하며 전일의 폭등(25.35%)을 멈춰

다. 이 외에 KB금융(2.81%), 미래에셋대우(1.80%), NH투자증권(-1.21%), 삼성증권(-2.01%) 등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던 다른 대형사 주도 혼조세를 보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기도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문제에선 한숨 돌렸지만 타사들도 ELS 운용손실 악화로 인한 1분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로 시장 상황을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높은 CP 금리도 우려로 꼽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신용평가등급 A1 등급 CP 91일물 금리는 연 1.87%에 마감했다.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강승건 연구원은 "증권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로 CP금리가 올라 조달비용이 증가하는 등 단기 스왑레이트가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단기자금 사정을 해결해야 하는 것 역시 남아있는 숙제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노후 주택 갈아타자'... 부산 부동산 시장 활기

노후 주택 많아 신규 아파트 관심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226 대 1

최근 침체상태였던 부산지역 신규 분양아파트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당초 부산은 지난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첫 분양 단지였던 해운대구의 '센텀 KCC스위첸'은 26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 8160건이 접수되며 평균 67.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부산 시내 최고 청약성적이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분양한 부산진구의 '서면롯데캐슬엘투체' 역시 평균 경쟁률 42.82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풀 꺾이는 분위기였다. 하락세는 가격, 거래량에서도 드러난다. 부산의 아파트값은 3월 두번째 주 0.



'포레나 부산 덕천' 조감도.

02% 하락했다. 이는 지난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발표된 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올 들어 거래량도 지난해 12월 1만6419건에서 1월 1만1037건, 2월 8456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은 활기다. 이달 북구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은 16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4920건이 접수

되며 평균 88.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덕천2-1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된 구도심 내 신규 단지로 갈아타기 수요가 높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달 해운대구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역시 8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928건이 접수돼 평균 22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으로 아파트 152가구(84㎡), 오피스텔 19실(84㎡)이다.

부산 분양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갈아타기 수요라는 분석이다. 부산은 노후 주택비율이 높아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2월 중순까지 부산에 입주한 아파트는 80만351가구로 이 중 입주 20년 이상(2000년 이전 입주)된 아파트는 39만127가구, 48.74%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46.93%)이나 전국 평균 노후아파트 비율(42.37%)보다 높은 수치다.

부산 내에는 여러 곳의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정비사업이 실현되는 지역은 각종 인프라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분양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26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프라자 꽃을 들고 웃음을 짓고 있다. /한국거래소

정지원 KRX 이사장 '꽃 선물 캠페인' 동참

화훼농가 돕기 일한 참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하며 시작됐다.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 이사장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참여했다. 선택한 꽃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향기를 지닌 노란 프라지아.

그는 "일상의 회복과 건강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웃어보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과 입학식 등 봄철 행사가 취소돼 화훼농가가 고충을 겪고 있다"며 "전염병의 불안과 공포에서 잠시 벗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희망의 의미를 담은 꽃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다음 캠페인 대상자로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김근호 코넥스협회 회장을 지명했다.

/송태화 기자

삼성 주식은 삼성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폭증

한달 간 비대면 계좌 10만개 개설 신규고객 중 68% 삼성전자 매매



최근 '동학 개미운동'이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개인투자자(개미)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달 동안(2월 24일~3월 25일) 개미는 총 5조7824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다. 우선주를 포함하면 6조6000억원이 넘는 순매수세다.

이같은 움직임에 삼성증권이 떠안은 수혜를 받고 있다. 주식 투자를 처음해

보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서 사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서다. 실제 삼성증권 신규 계좌수가 폭증하고 있고, 삼성증권 모든 부서가 현장 고객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지점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1만1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전체 계좌 개설 건수의 절반 수준이다.

비대면 계좌개설도 활발하다. 최근 1개월(2월 24일~3월25) 동안 삼성증권 신규 비대면 계좌는 10만개를 넘어섰다. 비대면이지만 40~50대를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개설되는 경향을 보인다.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계좌 급증은 과거와 달리 이벤트에 따른 증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주식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삼성

권을 가야한다"는 인식이 확대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좌 개설을 하려는 고객으로 인해 일부 지점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고객만 수백명이라는 후문이다.

실제 삼성증권이 신규비대면 고객의 3월 주식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61%가 삼성전자를 한 번이라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지점으로 유입된 신규고객 중 68%가 삼성전자를 매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여러부서가 높아진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현장 고객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더 자세한 데이터는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임지 기자 sonumji301@